

매력적인 정치홍보 수단으로서의 출판 정치와 출판의 함수를 묻다

정치와 출판은 이제 불과분의 관계가 되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잠룡(潛龍)들은 물론이고 국회의 원, 시의원,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 한 권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태이다. 기선잡기에 나선 대권 예비주자들은 벌써부터 여론의 지지를 수차례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권 8개월 여를 앞둔 시점에서 우후죽순(雨後竹筍) 쏟아져 나온 책들의 판매고에 따라 여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글 장동석·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대 권 예비주자들의 책 출간이 본격화되면서 서점가에 나타난 독자층의 반응은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관련 서적이 '거사를 앞둔 표 모으기 전략'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던지지만, 이들 도서의 판매 성향이 여타 도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에서 딱히 부정적 시각만 존재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정치, 책 그리고 독자

일반적으로 인물에 초점을 맞춘 정치인 관련 서적은 경쟁자들의 책들에 비해 '주제'와 '심도'를 어떻게 차별화하느냐에 따라 판매고가 달라진다. 때문에 주변인들이 쓴 인물 분석 류보다 당사자가 직접 솔회하는 에세이 형식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독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적정 판매고 달성 여부가 큰 관건이다.

지난 3월 출간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에세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우리 시대 어머니의 모습을 자연인 '이명박'이 회고했다는 점에서, 대선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출간했다는 혐의를 배제할 수 없지만, 독자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여권의 잠재적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책 《서른의 당신에게》 역시 같은 맥락이다. 출간 당시 단기 판매고에서 강세를 보이며 대중적 인기를 실감케 했던 강금실 씨의 책을 읽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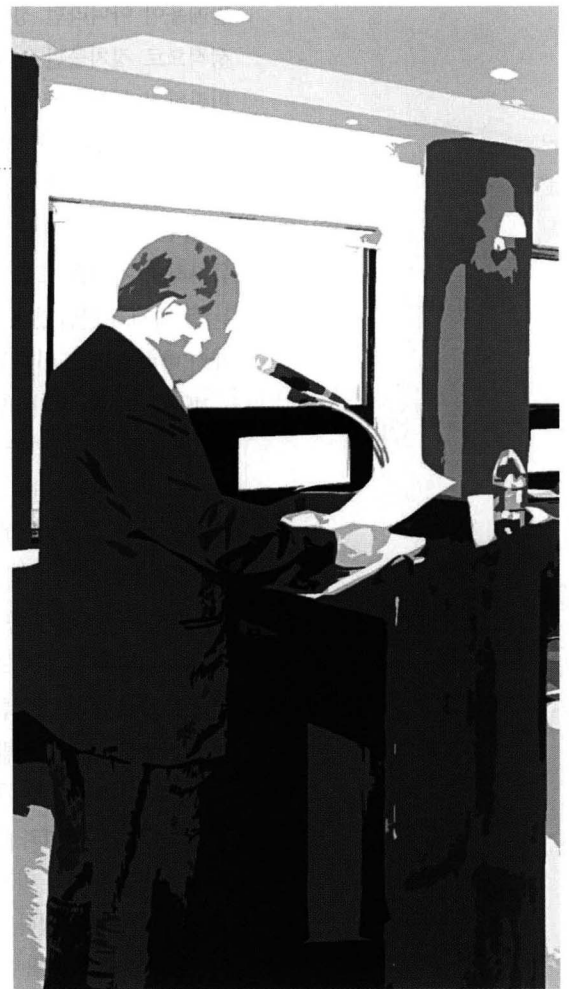
독자는 "정치적 목적을 담았다는 것은 억측이다. 치열한 인생 여정과 인생 선배의 조언이 담겨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대조적으로 다양한 기획으로 출간되는 정치 인물서와 평문서는 두 자릿수 판매고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경우 출판기념회 등 비정기적인 이벤트가 열리는데, 이때마다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판매량에 따라 인물에 대한 지지도나 인지도를 가늠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여론을 형성하는 막강한 힘, 출판

사실 정치인들에게 책은 선거법을 피해가는 홍보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출판은 그들의 삶과 정치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셈이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서적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던



때 학창시절을 보낸 386세대가 정치계와 출판계 전면
에 등장하면서 정치와 출판은 밀월까지는 아니어도
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 출판평론가는 “386세대, 특히 운동권 출신 편집
자들이 출판계로 진출하면서 정치에 대한 편견을 조
금이나마 없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출판사 대표는 “386세대 출판
인들은 대부분 인문사회과학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정
치인들의 책을 출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
한다.

언론사 관계자들 사이에 농담이 하나 있다. “모든
정치인은 언론에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매일 올리고 싶
어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이미지이건 설사 나
쁜 이미지라 해도 상관없다. 언론에 자주 오르내려야
일 많이 하는 정치인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될 것이
고,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은 책을 통해 자신의 삶과 정
치철학을, 그 중에서도 좋은 이미지만을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은 정치 혹은 정치인의 중
요한 홍보수단이다. 한국출판학회 이정춘 회장은 한
매체의 기고글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스스로 사상과 의지를 출판을 통하여 대중의 마음
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대중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의 위상을 쉽게
추락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의 마
음을 움직이고, 여론을 형성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출
판은 정치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정치수단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책’이 아니라 ‘자신만의 책’ 남겨야

차천 타천으로 대선 예비주자들의 물망에 오른 인
물들이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
는 것이 요즘 분위기다. 한 신문은 이들 정치인들의 출
판기념회를 두고 ‘출판 정치’라는 신조어까지 선보이
면서 정치인들이 출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도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대선에
서 부시에게 패한 앨 고어 전 부통령이 지난 7년 동안
이렇다할 정치활동보다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했음에
도 불구하고, 5월 정치 관련 책을 출간하는 것을 시작
으로 대선에 재출마할 것임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

《군주론》을 남긴 마키아벨리는 정치인이었다. 《유
토피아》를 남긴 토머스 모어 역시 법률가이자 정치인
이었다. 위·조·송·정·진·채·초나라를 주유하
며 자신의 정치적 경륜을 펼치고자 했던 공자도 제자
와의 문답과 행적을 담은 《논어》를 남겼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가 있다. 이들 모
두 정치인들이면서 후대가 읽을 수 있는 고전을 남긴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요즘 책을 출간하는 정치인들에게 ‘고전’
이 될만한 책을 남겨달라는 주문은 아니다. 수많은 책
들이 범람하고 있는 세태에, 그것에 편승하는 ‘또 하
나 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철학’을 담아 ‘자신의 책’을 남
겨달라는 것이다. 출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들이, 활자로 표현된 텍스트는 ‘영구성’을 잃지 않는
다는 점만 명심한다면, 정치인들의 책에서도 공약(空
約)은 사라질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